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 감탄고토(甘呑苦吐)



주님 수난 성지주일은 마치 성삼일을 예습하듯이 수난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보여줍니다. 그 수난의 시작은 바로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늘나라가 당장이라도 도래할 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극진히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밀집한 군중을 헤치며 예수님이 지나갈 자리를 뚫고 가던 제자들도 어깨가 으쓱하고, 예수님을 나름 따른다는 사람들도 나귀 뒤의 행렬에서 우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난의 전조들을 모두 읽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리 격하게 환영하고 있는지도, 환영의 높은 구름 위에서 실망의 구렁텅이로 거꾸러질 때 이들이 어떤 폭도로 변할 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군중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서조차 배반의 그림자를 느낄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현세적인 기대를 걸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뒤집을 구세주가 왔으니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들만의 강대국으로 만들어 줄 것을 바랬습니다. 자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목격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

이들은 자신의 기대가 어긋나자 폭도로 변하였습니다. 이들에게 많은 기적과 심금을 울리는 말씀을 많이도 하셨지만, 그들은 받은 은총을 생각지 않고 채워지지 않은 욕구의 빈자리만을 보았습니다. 군중은 일관성이 없었고, 자신의 기분과 입장에 따라 진실과 거짓도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욕구를 하느님으로 모시고 진짜 하느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까지 소리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좋을 때는 엎드렸다가 기호에 맞지 않을 때는 뒤돌아서고, 그것도 조용히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해코지도 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군중과 제자들의 배반에도 불평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을 지켜나갑니다.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억울한 누명과 고발에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술한 매질과 가시관에도 조금의 저항 없이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실이라는 뜻은 ‘열심’을 말하기도 하지만 먼저 ‘한결같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함은 성실의 덕을 완전하게 해 줍니다. 사실 열심보다 한결같음이 더 어렵습니다.

주님 수난 성지주일은 우리 자신이 예루살렘 입성의 군중이 되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연극처럼 흉내가 아닌 실제의 군중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군중을 체험한다기보다 되어볼 필요도 없이 우리는 그냥 군중입니다. 가지를 흔들며 우리의 꾸준하지 못한 모습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시련과 박해 앞에서 포기하는 모습, 우리의 기호와 애정을 하느님보다 더 절대시하는 모습, 빌라도처럼 무죄를 알면서도 군중에게 비위맞추는 모습,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게 거부하고 미워하는 모습, 예수님께 바쳐야 하지만 게으름과 편안함에 내어준 많은 시간들. 생각해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모든 기회주의에 대해 용서를 청합시다. 이런 우리 군중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꾸준함과 성실, 변치 않는 사랑을 본받을 수 있는 은총도 함께 청하도록 합시다.

진보 본당 류한빈 안드레아 신부



##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전례

###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인 오늘 수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로 건너가는 파스카의 신비에 동참하며 이 전례에 임합니다.

**입당성가** : 10번 ‘주를 찬미해’

### 성지축복 전 권고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사순 시기 처음부터, 속죄 행위와 사랑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은 교회와 함께, 주님의 수난과 부활을 미리 준비하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이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성지축복 기도**(주례자는 성지와 성수를 미리 준비한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나뭇가지에 강복하시고 +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고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주례자는 말없이 나뭇가지에 성수를 뿌린다.)

**예루살렘 입성 복음** : 마태오 21장 1절-11절

### 본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이사야서 50장 4절-7절

**안 내** : 하느님의 종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묵 상** : 하느님의 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을 전하도록 불림받았습니다. 또한 하느님이 그에게 심어주시는 말을 온전히 듣기 위해 귀를 엽니다. 그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묵말라 기다리며 매일을 새롭게 엽니다.

**화 답 송** :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 제2독서 : 필리피서 2장 6절-11절

**안 내** : 주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 품어 안으시려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묵 상**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영광과 종의 모습을 동전 양면처럼 지니신 분, 창조주의 영광부터 피조물의 초라함까지 어느 것 하나 더 좋고 나쁜 것 없이 품어 안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하느님의 뜻을 들어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복음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수난복음** : 마태오 26장 14절-27장 66절

**강 론** : ‘감탄고토(甘呑苦吐)’(1-2쪽)

**예물준비성가** : 511번 ‘미약하온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 170번 ‘자애로운 예수’

**영성체 후 묵상**

빨마 가지를 들고 예수를 환호하는 군중들은  
천만 가지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인생살이의 고달픔을 없애줄 구세주,  
평안과 부귀를 안겨줄 구세주,  
기적을 보여줄 구세주를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느님의 눈으로 당신을 알아보도록 초대하십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구원자,  
선인에게든 악인에게든 사랑을 전하려 한 구원자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며 거룩한 시간을 바쳐드립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18번 ‘골고타 언덕’



## 밥이 보약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을 잘 먹는 아이도 있지만 잘 먹지 않는 아이도 있어서 부모님들의 속을 썩이기도 하여, 억지로라도 밥그릇을 다 비우게 할 때도 있습니다. 군대에서조차 식사시간은 자율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하는, 국방부 장관이 모든 병사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밥을 먹지 않으면 영창에도 갈 수 있으나 밥을 안 먹어서 영창에 왔다는 병사를 본 적은 없습니다. 훈련, 작업, 근무 등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군대에서 식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산을 할 때에도 많은 열량소모로 힘이 빠져서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식량을 챙기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에 양식이 필요하듯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신체적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열량이 소모되는 지도 모릅니다. 뛰고, 걷고, 들고, 옮기고, 움직이는 모든 활동에 에너지가 필요한데, 영혼은 그보다 더 힘든 활동을 합니다.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실천하고... 신체활동과는 차원이 다른 활동입니다. 하느님께로 가고 하느님이라는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영혼의 양식인 성체입니다. 영성체를 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활동에 필요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뉘우치고 선으로 나아가고 이웃을 돕고 기도하고 등 신체의 활동보다 힘도 많이 들고, 신체활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아령이나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성체로부터 받는 영양을 바탕으로 적게라도 계속 힘을 쓴다면 영혼의 근육도 늘어납니다. 이웃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힘, 실의와 좌절에서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는 힘, 남을 위로하는 힘, 유혹에 맞서는 힘도 커집니다. 좋은 음식을 통해 키가 자라고 살이 찌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성체를 통해 희망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되고 사랑이 깊어집니다.

오늘 주님 만찬 성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중요한 양식인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날입니다.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주셨지만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주셨습니다. 다음날 있을 수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최후 만찬으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몸과 피를 모두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성체를 모시는 미사 때의 마음가짐을 생각해 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들에게 “기념”은 단순히 옛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기념은 탈출의 날,

양을 먹던 바로 그 자리에 그들도 함께 동참하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독서에서 예수님도 “기억”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미사를 통해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기념, 기억”이라는 말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고 있는 그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 빵을 나누는 엄숙하고 황홀한 식탁의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는 십자가 바로 아래,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때 그 곳에 서있는 것입니다. 미사의 순간이 한국의 어느 동네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최후의 만찬 중 예수님의 발씻김에 대해 말합니다. 발을 씻었던 것은 성체성사 중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성체성사의 일부입니다. 성체를 모시는 순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깨끗이 닦아 주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우리 마음을 풀어헤쳐 당신이 들어가기 위해 낮은 모습으로 어루만지시는 때입니다. 영성체 직후 우리는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발을 씻기며 발처럼 때묻은 우리 영혼을 깨끗이 해주시며 우리의 사랑을 애걸합니다. 성체를 모실 때마다 예수님이 기뻐하고 만족하시도록 우리의 사랑을 드리도록 합시다.

진보 본당 류한빈 안드레아 신부



### 주님 만찬 성 목요일 전례

*(오늘은 우리 주 예수께서 수난과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식사를 드시면서 자신을 기억하며 행하라고 명하신 성찬을 거행하는 날이다. 저녁에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성체성사의 뜻을 헤아리며 이 전례를 한다.)*

####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파스카 성삼일의 첫날인 성목요일로 주님 만찬 미사가 봉헌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셨고,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며 큰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이 전례에 참례합시다.

**입당성가** : 116번 ‘주 예수 바라보라’

#### 본기도

†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이 거룩한 만찬으로, 새로운 제사와 당신 사랑의 잔치를 교회에 남겨 주셨으니, 이 만찬에 참석하는 저희에게 넘치는 사랑과 생명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제1독서 : 탈출기 12장 1절-8절, 11절-14절**

**안 내 :** 주님께서서는 ‘이집트를 치실 때, 이스라엘 집안은 거르고 지나가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여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고 명하십니다.

**목 상 :**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며 파스카축제를 지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의 기억 안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야 합니다.

**화 답 송 :** ◎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네.

**제2독서 : 코린토 1서 11장 23절-26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인들에게,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목 상 :** 우리는 미사성제 안에서 성체와 성혈을 영할 때 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죽음을 넘어선 큰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수난복음 : 요한 13장 1절-15절**

**강 론 :** ‘밥이 보약’(1-2쪽)

**예물준비성가 :** 122번 ‘구원의 십자가’

**영성체성가 :** 498번 ‘예수여 기리리다’

**영성체 후 묵상**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큰사랑 드러내신 예수님께서서  
우리도 누군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가장 낮고 비천한 처지가 되어 남의 발을 씻기라는  
유언을 남기십니다.

<침묵>

어색하게 무릎을 꿇고  
누군가의 발을 씻겨 봅니다.  
연약한 발, 부드러운 발, 비뚤어지고 모가 난 발,  
상처투성이의 발을 만지면서  
그의 삶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힘겨움, 고통, 인내....

<침묵>

정성스레 발을 씻기고 난 후  
깨끗해진 발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 발은 고통과 인내로 살아가신 주님의 발이었습니다.



##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요한 19.28)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순 3주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에게 물을 좀 다오.”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 합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는 사순3주일의 복음은 “목마르다.”는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께 배부름의 충만함을 느끼게 해 드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의 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뜻합니다.

물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들에 대해 예수님은 타는 갈증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에 목마르고 굶주리며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풍덩 뛰어들길 바라셨고 당신은 모든 것을 주셨지만, 예수님께 작은 것도 좀처럼 양보하지 않는 냉랭한 우리 마음에 “목마르다”(요한 19.28)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한번쯤 짝사랑의 애절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짝사랑은 알아주길 바라면서도 남몰래 하는 것입니다. 한참을 짝사랑 하다보면 지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짝사랑하는 상대가 나에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내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실망하고 슬퍼합니다. 혹은 그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또 짝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 힘이 빠집니다. 반면, 내가 좋아하는 만큼 그가 나를 좋아할 때는 세상이 모두 내것인양 기뻐하고 들뜩니다.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간의 고통은 모조리 사라지고 환희와 기쁨만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끝도 없이 짝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더 힘 빠지게는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데도, 더 심하게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사랑하는 데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갈구합니다. 당신만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영원히 기다리십니다. 사랑에 목이 타는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취하려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목마름을 가라앉히고 시원한 물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지치지 않는 간절한 짝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물 대신 쓸개즙을 먹이는 데도 그것을 받아 드십니다. 그 쓸개즙이라는 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예수님의 쓰디쓴 실망감과 슬픔을 표현하는 듯합니다. 자신을 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무관심과 냉혹함의 또 다른 상징인 것입니다.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하신 바오로 사도 말씀의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



한결같은 사랑을 지켰다는 심정으로 “다 이루어졌다.”(요한 19,30)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말씀일까요? 하느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을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이 이상 더 줄 것이 없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단박에 달라질 겁니다. 알고자만 하여도 혹은 알고 싶다는 거룩한 욕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하느님께서 금방, 즉시 가르쳐 주실 텐데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알고 싶다는 생각도 잘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즐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수난에 동참하고 위로해 드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에 굶주리고 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십자가의 예수님께 쓸개즙이 아닌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걸맞게 이 예식 안에서 우리도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예수님!”하고 고백합시다.

진보 본당 류한빈 안드레아 신부



### 주님 수난 성 금요일 전례

*(주님 수난 성금요일 전례는 말씀의 전례, 십자가 경배, 영성체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미리 독서자와 수난복음을 나누어 읽을 사람을 배정하고 경배용 십자가를 준비한다.)*

####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고와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께 바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드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수난 예식의 의미를 되새기며, 십자가를 우러르며 묵묵히 무릎을 꿇읍시다.

*(주례자는 제단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잠시 기도한 다음, 교우들을 향해 서서 기도를 바친다.)*

기도 (“기도합시다!” 없이)

✠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교우들을 위하여, 당신 피로써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이 교우들을 영원히 보호하시며 거룩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이사야서 52절 13절-53절 12절

안 내 : 주님의 종은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습니다.

묵 상 :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 또한 죄에 대해 죽어야만 주님 사랑과 이웃형제에 대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화답송 :** ◎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제2독서 :** 히브리서 4장 14절-16절, 5장 7절-9절

**안 내 :** 위대한 대사제이신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지만 순종을 배우셨고,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묵 상 :**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뉘인 수치와 모욕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비우셨습니다. 이제 그 수난의 잔이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복음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수난복음 :** 요한 18장 1절-19장 42절

**강 론 :**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1-2쪽)

**보편지향기도**

**안 내 :** 세상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 수난의 길을 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간청합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주례자는 아래 기도를 정성되이 바친다.)*

**1) 교회를 위한 기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침묵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었으니, 주님께서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 주시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신앙으로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2) 교황을 위한 기도**

†하느님께서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를 친히 주교로 뽑으셨으니, 그를 건강하게 지켜 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합니다. *(침묵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세상만사는 주님의 손에 달렸사오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뽑으신 교황을 인자로이 보호하시며, 주님의 백성을 몸소 다스리시어, 교황의 인도로 믿음의 공로를 쌓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3) 성직자들과 모든 신자를 위한 기도**

†우리 주교 ( )와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침묵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오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주님의 은총으로 지켜 주시어, 주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4) 그리스도 신자들의 일치성을 위한 기도**

†우리 주 하느님께서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

나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침묵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것을 한데 모으시고 지켜 주시니, 주님의 양 떼를 돌보시어, 하나의 세례로 거룩하게 된 모든 형제를 신앙과 사랑의 끈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5)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앓는 이, 굶주린 이, 옥에 갇힌 이, 억압받는 이를 보살펴 주시며, 임종하는 이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침묵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근심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오니, 온갖 환난을 겪으며 부르짖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모든 이가 주님의 자비로운 도움을 받고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십자가 경배

**안 내 :** 이제 우리는 십자가 경배 예절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표지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우리 주님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살도록 다짐하며 십자가 경배 예식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주례자가 제단 가운데에 서서 십자가를 높이 들고 아래와 같이 외칠 때 마다 교우들은 ‘모두 와서 경배하세.’라고 크게 응답합니다.

(주례자)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세번)

(교우들) 모두 와서 경배하세. (세번)

*(주례자는 십자가를 제단 가운데 모셔 놓고 앞으로 나와 깊이 절하며 경배한다.)*

**십자가 경배 예절 안내 :** 이제 한 분씩 제단 가운데로 나와 십자가 앞에서 고개 숙여 깊이 절하며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성가 125번 ‘거룩한 주의 십자가’)

**영성체성가 :** 152번 ‘오 지극한 신비여

예수님을 따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을 보여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주님의 뜻이기에 받아들이고 간다면

그것은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 주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 공지사항

**마침성가 :** 490번 ‘십자가에 가까이’



**알 림**

■ **우곡성지 미사 안내**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신설)**

- 주일 오전 11시, 평일과 토요일 오전 7시 단, 매일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오전 11시
- 순례단 요청시 상시 미사 가능
- 첫 토요 성모신심미사는 3월부터 봉헌합니다.
- 매일 넷째 주일은 우곡성지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입니다.
- 개인, 단체 피정이나 미사 신청 문의는 상시 접수.
- 문의 : 054-673-4152 FAX 054-673-7094

■ **2017년 열린 성경 강좌 2**

- 일시 : 4월 10일(월) 19: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주제 : 루카 복음 2
- 준비물 : 신,구약 성경
- 참가비 : 1인 2,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미사 공지**

- 일시 : 4월 10일(월) 19:30
- 장소 : 목성동주교좌성당
- 주례 :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 주관 : 교구 사회사목협의회

■ **성 목요일 성유축성미사**

- 일시 : 4월 13일(목) 11:00
- 장소 : 목성동 주교좌 성당
- 준비물 : 장백의, 백색영대, 성유그릇

■ **지구 교사 연수**

- 일시 : 4월 23일(주일) 13:00 - 18:00
- 장소 : 의성 본당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초등부 교재, 두레판
- 대상 :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담당 수녀
- 참가비 : 1인 10,000원
- 신청 : 4월 20일(목)까지

■ **교구 청년 단합대회**

- 일시 : 4월 30일(주일) 10:00 - 17:00
- 장소 : 교구청
- 대상 : 안동교구 내 본당 청년, 대학생
- 회비 : 1인 10,000원

■ **2017년 교구 친교의 날 및 제26회 교구장배 체육대회**

- 일시 : 5월 3일(수) 09:00 ~ 15:00
- 장소 : 영주 국민체육센터
- 종목 : 테니스, 족구, 피구, 윷놀이, 지구별 줄다리기
- 참가자격 : 안동교구 내 가톨릭 신자 (단, 예비신자는 참가 불가)
- 주최 :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주관 : 북부지구 지구사목협의회
- 참가신청 : 4월 20일(목)까지 하망동성당 (FAX 636-9103)
- ※자세한 사항은 공문 참조.

■ **제2차 가나혼인강좌(혼인 전 교리교육)**

- 일시 : 5월 20일(토)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1인 1만원(2인 2만원)
- 대상 : 혼인을 준비 중인 남녀 (함께 참석해야 함)
- 신청 : 5월 18일(목)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4월 23일(부활 제2주일) : 영덕 본당
- 4월 30일(부활 제3주일) : 서문동 본당 (견진성사)

■ **2017 수취폐 도미네 생활성가 음악피정**

- 5월 14일(주일) 19:00 공검성당